

# IITP, ICT R&D 전주기 서비스로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ICT R&D 지원 기능이 5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연구수행기관들의 혼란이 매우 크고, 작은 일처리에 있어서도 번거로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간 ICT R&D에 종사하는 일선 연구원들이 입을 모아 제기한 불만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모든 ICT R&D 부서가 한 자리로 모여 전 단계에 걸쳐 일원화된 ICT R&D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ICT 연구개발의 총괄전담기관인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가 본격 출범하였다. 그간 ICT R&D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차 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R&D 기획, 관리 및 기술사업화 기능의 분산으로 ICT R&D의 지원 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ICT R&D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연구현장에서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음은 물론, 창조경제의 핵심 실현동력으로써 ICT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있어 왔다. 이로 인해 기획부터사업화까지 ICT R&D의 전주기를 통합·지원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출범은 우리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ICT 산업은 민간의 도전 정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신흥 경쟁국의 위협,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 영원한 1인자는 없다는 글로벌 1등 신화의 몰락 등 우리 ICT 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변화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ICT R&D는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R&D 패러다임이 창의·융복합 기술개발과 개방형 혁신기반의 기술 사업화에 중점을 둔 4세대 R&D 혁신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R&D,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역시 급변하는 경제·사회·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우리나라의 ICT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창조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주기 통합 기관으로써 출범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진보한 R&D 전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앞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ICT R&D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유기적



이상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기획→평가·관리→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전주기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ICT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조적 R&D가 사업화로 이어져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R&D 성과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한 선제적 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를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적극 고려, R&D 전주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대 분야 CP(Creative Planner, 민간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획그룹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내부 조직 간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여 R&D 전주기 간 연계 강화는 물론이고 조직 내 시너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둘째, ICT R&D 성과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숨겨진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수한 R&D 성과가 사장(死藏)되어 국부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우수한 ICT R&D 성과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사업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성과확산단, 기술거대단을 각각 두고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ICT R&D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 연구 성과의 확산, 상상력과 창의력의 상품화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특히 지적 재산권의 선진적 관리, 국내·외 기술이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ICT 기술거래의 프레임워크를 조성하여 개방형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발맞춘 ICT 기술가치 문화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다.

■ 셋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더 이상 ICT R&D를 관리(management)하는 기관이 아닌, ICT R&D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support)하고 서비스(service)하는 전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센터 내 조직운영, 업무 프로세스, 직원 마인드 등을 모두 업그레이드 해 나갈 생각이다. 더 이상 관리가 아닌, 연구자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전 직원이 모두 함께 고객과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 시장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고객인 연구수행기관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R&D 평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ICT R&D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게 되었다. 아직은 신생조직으로써 조직기반 안정화와 업무 효율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조직·업무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ICT R&D 전주기 통합서비스의 발굴·제공을 통해 연구현장에 친절한 ICT R&D 전담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단생산사(團生散死)라 하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처럼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ICT R&D 기능이 한 곳으로 결집하여 최대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세계 최고의 R&D 전담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ICT 산업이 글로벌 First-Mover로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한다. TTA